

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(**한경BUSINESS** 국제면 기고)

법무법인 지평지성 '글로벌 비즈니스 센터'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'한경비즈니스' 국제(Global)면에 정기적으로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러시아, 일본, 브라질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태국,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.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

[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이유]

No. 847 | 2012. 2. 29.

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'포석'



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· 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

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,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. 중국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의미를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이 곧 개시된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.

한중 FTA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이제야 시작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. 중국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간 협상은 벌써 시작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.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되어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므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...(중략)

- [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](#)